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 재개관

정읍시, ‘정읍사·정읍사실·우리 가요 변천사’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로 만날 수 있어

정읍시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한 역사문화 관광지 ‘한국가요촌 달하’의 가요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18일 재개관했다. 전시관은 이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관람객을 맞고 있다.

가요전시관 개관에는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투입됐다.

전시관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와 이를 궁중 가악곡으로 전승한 수제천을 주제로 한 ‘정읍사실’, 우리 가요의 변천사를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을 통해 살펴보는 ‘달하악당(樂堂)’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전시와 체험을 통해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 시대별 우리 가요의 흐름과 발전 과정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정읍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인 전시·체험 방식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국가요촌 달하를 정읍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육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재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에는 한국가요



정읍시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한 역사문화 관광지 ‘한국가요촌 달하’의 가요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18일 재개관했다. 재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에는 한국가요촌 달하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촌 달하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달하 음악정원 가요콘서트’에서는 가수 박창근이 공연을 펼쳐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학수 시장은 “새롭게 단장한 가요전시관이 백제가요 정읍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가요촌 달하를 중심으로 정읍만의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자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국악극 공연

31일~9월 19일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개최

남원시립국악단이 청아원에서 정지아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오는 7월 31일 오후 7시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총 9회 창작 국악극으로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온 주인공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과 시대를 새롭게 이해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가족의 서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해와 화해,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원작에 담긴 전라도 사투리의 구성진 맛을 국악의 장단과 소리로 살려내고, 장례식장에서 펼쳐지는 ‘웃음과 눈물의 3일장’을 입체적인 무대로 그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지역적 정서와 소리, 음악, 연기가 어우러져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국악극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오는 8월 13일 제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으로 한국소



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무대에 오르며, 이번 초청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역량과 남원 공연예술 콘텐츠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 최용석 남원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이야기와 노래, 연기가 경계를 허물며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작품에는 작곡가 송지훈, 작창가 장서운, 움직임 연출 정소연 등 각 분야의 전문 창작진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공연 관람권은 인터파크 NOL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춘향’ 일본 공연 성료

오사카·오키나와서 1270명 창극 관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7월 9일과 13일, 일본 오사카 국립분리쿠극장과 오키나와 대극장에서 창극 ‘춘향’을 선보이는 일본 2개 도시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오사카 공연에는 705명, 오키나와 공연에는 565명이 찾아 총 1,270명이 관람해 객석 점유율은 오사카 97.4%, 오키나와 94.6%로, 전체 96.1%를 기록하며 국립민속국악원 대표창극 ‘춘향’의 해외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번 순회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과 주오사카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투어링 케이-아트(Touring K-Arts)’ 사업의 하나로 마련, 춘향의 고장 전북 남원에서 제작한 창극 ‘춘향’이 일본 국립극장 무대에 올라 한국 창극의 매력을 알리고, 한일 전통공연예술 교류의 폭을 넓혔다.

배상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대본을, 한승석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가 작창을 맡았으며, 김정 연출, 판소리 특유의 소리와 호흡에 기악과 무용을 결합해 춘향의 감정을 입체적으로 펼쳐냈으며, 일본어 자막을 제공해 현지 관객들이 작품의 이야기와 정서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한국출판인회의, 디지털 출판 인재 양성 협력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HUSS사업단, 단장 이용욱)은 최근,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유정연)와 디지털 출판 인재 양성과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출판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미래 출판산업을 이끌 실무형 융합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출판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공동 기획·운영 △전문가 인적 교류 △학생 대상 비교과 특강 및 위탁교육 △기타 디지털 출판 분야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국출판인회의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교육 과정에 접목해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전자출판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출판문화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출판진흥원, ‘찾아가는 타이베이 도서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대만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이베이에서 ‘2026 찾아가는 타이베이 도서전’을 개최하고 K-북의 대만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

‘찾아가는 도서전’은 국내 출판사의 해외 판권 수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만은 한국 도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

가하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 중앙도서관의 ‘2025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신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번역 종이책 신간은 2021년 580종에서 2025년 902종으로, 전자책은 같은 기간 301종에서 466종으로 늘어나 최근 4년간 한국 도서 번역 출간이 55.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전에는 도서출판 불멸과 문학동네, 한울수북 등 국내 출판사 20곳이 참가하며,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에는 대만의 대표 출판사인 에스부커(Sbooker)를 비롯해 링킹 퍼블리싱 컴퍼니(Linking Publishing Company), 커먼웰스 매거진 퍼블리싱(Common Wealth Magazine Publishing) 등 주요 출판·미디어 기업들이 참가해 국내 출판사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출판진흥원은 참가 출판사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 수출 전략 교육과 대만 출판시장 변화 세미나, 현지 바이어 발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수출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 도서를 타이난 세종학당과 대만국립도서관에 기증해 현지 독자들이 지속 K-북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국가유산·전통사찰 88곳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정읍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난 13일부터 관내 국가유산과 전통사찰 총 8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국가지정·등록유산 17곳과 도지정·등록문화유산 45곳, 향토문화유산 16곳 등 국가유산 78곳과 전통사찰 10곳이다. 박물관 등

에 보관 중인 동산유산과 무형유산은 현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각 읍면동·현장을 찾아 기초적인 육안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